

## 번호 15-6

제 목	국문	의사인력의 지역적 분포에 대한 연구				
	영문	<b>Geographic Distribution of Physician Manpower</b>				
저자 및 소속	국문	하범만 <sup>1)</sup> , 신순애 <sup>2)</sup> , 김창업 <sup>1)</sup> , 김용익 <sup>1)</sup> 1)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영문	Beom-Man Ha <sup>1)</sup> , Soon-Ae Shin <sup>2)</sup> , Chang-Yup Kim <sup>1)</sup> , Yong-Ik Kim <sup>1)</sup> <i>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rmed Forces in Medical Command, 2) Social Security Research Cente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i>				
분야	보건관리 (○) 역학 ( ) 환경 ( )	발표자	일반회원 ( ) 전공의 (○)	발표 형식	구연 (○) 포스터 ( )	
진행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2000년 10월					

### 1. 연구 목적

한정된 자원으로 양질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들에게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서는 의료자원의 적정공급과 더불어 자원의 지역적 균형분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의사인력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의료부문은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을 중시하므로 지역간 의사인력의 합리적인 분포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의사인력의 균형된 분포는 제한된 의료자원으로 효율적이고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의사인력의 분포에 대한 연구가 일부 시행된 바 있지만, 진료과목과 진료수준, 진료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석을 했거나 단편적인 시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 진료를 행하고 있는 의사인력에 대해 진료과목과 진료수준, 진료기능을 고려한 의사인력 분포양상의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3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의사인력의 지역적 분포 양상과 불균형 분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진료과목별, 진료기능별, 진료수준별 의사인력의 지역적 분포 양상과 불균형 분포 정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불균형 분포 양상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2. 연구자료 및 방법

#### 1) 연구 자료

의사인력 자료는 1998년 ~ 2000년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현황보고신고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인구자료는 해당연도의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였다.

#### 2) 변수 정의

의사인력은 먼저 의과, 치과, 한의과로 구분하였고, 의과 의사인력의 경우 진료기능을 1차 진료과, 특수진료과, 진료지원과로 구분하였으며, 진료수준은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으로 구분하였다. 지역 구분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 3) 분석 방법

지역간 의사인력의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인구 10만명당 의사인력의 절대수를 비교하고자 하였고, 의사인력 절대수를 전체 의사인력을 다 포함하는 경우와 개원의 의사인력만을 포함하는 경우로 나누어 비교분석 하였다.

전국의 의사인력 분포를 Gini 계수로 산출하여 전문과목별, 진료기능별, 진료수준별 의사인력의 지역간 불균형 분포 양상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러한 양상이 1998년과 2000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비교하고, Lorenz 곡선을 이용하여 각 대상별 지역간 불균형 정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 3. 연구 결과 및 고찰

현재 자료 수집을 마치고 자료를 분석 중에 있다.